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2.5.20.(금) 10:30, 차덕철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세요?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북한 통화 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북 간 업무개시통화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상호 간에 특별히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도자료를 배포해 드렸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일주일간 제10회 통일교육주간이 진행됩니다.

기념식은 5월 23일 월요일 10시,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개최되며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중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국민...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두에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어제 국회 정보위에서 북한 핵실험 준비는 끝났다, 타이밍 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있을까요?

또 북한 코로나 상황은 지금 어떤지 북한에 백신지원은 최종 거부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먼저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보고되고 논의된 내용들을 통일부가 이 자리에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실험 준비 동향과 관련해서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의 주요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은 5월 20일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유열자 총수가 224만 명이며, 사망자는 65명인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속 분석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국방...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설명드리는 데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지금 북측이 아직도 우리가 제의하려고 한 코로나 협력

관련 남북 실무접촉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북측도 이미 남북한 방역협력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알고 있는 만큼,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예의 있게’ → ‘예의 주시하며’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면서 북한의 반응을 조금 더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어제 단둥 인근 지역에서 북한의 압록강을 넘어가다가 중국 공안에 잡힌 사람이 있고, 그중에서 확진자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가 파악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관련 기사 내용을 보았고요.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 부처들과 함께 노력 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확보한 정보는, 확인한 정보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한이탈주민법에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체류 탈북민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이 희망한 곳으로 갈 수 있어야 하며, 갈 수 있다는 입장에서 관련국들과의 협조 등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지금 사망자 통계, 코로나 발열환자들 통계들 보면 영유아의 사망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연관된 질문으로 어제 민간단체들이 기자회견 열고 북한에 의료품 뿐만 아니라 영양식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정부도 이런 식량지원도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단, 두 번째 민간단체 협력과 관련해서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적 협력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북측과 코로나 방역협력 등에 대한 협의를 하고 관련 합의서가 마련이 되면 저희가, 통일부가 물자반출 승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적용했던 일관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사안별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국 간 협력과 관련해서는 현재 북한의 코로나 방역협력과 관련된 제안을 하려고 있는 만큼 그 동향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상황, 구체적인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현재 북한이 발표하고 있는 내용으로만 봐서는 북한의 코로나 상황이 정확히 어떤 수준인지 혹은 호전되고 있는 것인지, 악화되고 있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일례로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열자'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상과 기준을 가지고서 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저희가 정보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동향을 조금 더 지켜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시간을

두고 보면서 분석과 평가를 해 나가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북한의 원로인 현철해 총고문이 사망을 했고, 또 양형섭, 그전에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이 사망을 했는데 각각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과 뇌경색이라고 하지만 일부에서는 혹시나 코로나19 합병증이 아니냐, 워낙 고령이기도 하고.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혹시 들리는 소식이나 파악되신 부분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사실 북한이 발표한 내용 외에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끝>